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63시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새누리당 박근혜·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 나란히 참석,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모습.



연말뉴스

# '공론조사' 치고받기

문측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 가져와"

안측 "제안 하라고 해서 제안 했더니~"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 경선을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주원인은 공론조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이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단일화의 방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입장이 확연히 갈리면서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민영 대변인은 20일 "제안을 하라고 해 우리가 제안을 했더니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되고 있다"며 "점잖게 말씀드리는 데 말썽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이상호 공보단장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가져와 놓고 문 후보가 '통큰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언론플레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 후보 측은 협상팀 간의 합의를 깨고 협상 내용의 일부를 왜곡해 언론에 알리는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책도 만들어 달라"고 반박했다.

정점은 공론조사 표본 모집 방식이었다. 안 후보 측은 전문가에 의뢰, 민주당 중앙대외원과 안 후보의 펀드 후원자 1만4000명씩으로 배심원을 무작위로 추출, 배심원단 중 3000명이 응답할 때까지 조사한 뒤 합산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대외원에 비해 펀드 후원자가 지지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훨씬 높다고 지적하면서 공론조사를 도입하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 후보 측은 민주당과 달리 조직된 당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층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후원자나 펀드 참여자를 표본으로 모집하는 것이 지지층의 마음을 모아 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안 후보 측 유대변인은 "안 후보의 지지층은 정치적 경험이 없는 분이 많으며 무당파, 중도층 등도 포함하고 있다"며 "안철수 캠프 입장에서는 보면 지지층 조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공론조사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도 "정당의 후보로서 정당의 조직 이외에 후원자를 선정하는 것은 민주당과 문 후보 측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 차이 때문에 문 후보 측은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에 맞춰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을 역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과다 대표성 등의 문제가 이미 발생한 방식으로 여론조사와 유사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공론조사란 양측이 일정한 규모의 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두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 운명의 100분

## 오늘 단일화 TV토론 ... 文 "믿을 수 있는 말형" 安 "이길 수 있는 후보"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의 형식이 20일 결정되면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두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20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21일 밤 10시 KBS에서 생중계하며, 후보 간 맞장토론 형태로 100분간 진행된다"며 "지상파 3사 공동 생중계를 해야 하지만 편성시간이 맞지 않아 공중파는 생중계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행은 양당이 동수로 추천한 6명의 사회자 후보 가운데 선정된 KBS 아나운서 출신 송지현 씨가 맡았고, 사회자는 질문을 하거나 토론에 개입하지 않고 순서 안내와 시간체크만 한다.

토론은 ▲단일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통일 등 5개 주제별로 20분씩 후보자 상호 간 문답 형태로 진행된다.

단 한 차례 이뤄지는 TV토론은 정해진 시간에 서로 우세를 주장하는 두 후보가 나란히 능력을 검증받는 '상대평가'의 시험대로, 단일화 표심을 가르는 중대 승부처이자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때문에 두 후보는 TV토론에 앞서 철저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 준비에 나선 상태이다.

◇文 '국정경험 내세워 안정감·신뢰감 강조'=문 후보 측은 당내 경선 때 10차례 이상의 TV토론 경험이 있어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우선 국정경험 등을 내세워 정책 능력과 안정감을 강조, 대통령 후보로서의 신뢰감을 각인시키는 게 최대 목표다. '말형' 이미지로 톤 큰 답례로 부각시키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TV토론팀에서는 이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예상질문을 추려 모범답안을 마련해 뒀다. 몇 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TV토론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보완대책을 세우는 자체 평가회도 했다.

하지만, 다소 딱딱한 이미지와 울사형 발투를 개선, 친근감 있고 따뜻한 대중적 화법으로 승화시키는 게 과제다. 안 후보 지지세가 두터운 젊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유머도 발췌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최근 TV토론 준비 총괄역에 97년, 2002년 대선 당시 TV토론 경험이 풍부한 김한길 전 최고위원을 긴급 투입했다. 김현미 소동2본부장이 TV토론팀장으로 실무 총괄하고 있으며, 신경민 의원과 시민캠프 유정아 대변인 등 방송인 출신들도 팀에 합류했다.

◇安 '변화·혁신'의 '미래형 지도자' 내세워=안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참신성'과 '새로운 변화·혁신'을 전면에 내세워 미래 비전의 구체적인 상(象)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의 분선 경쟁력을 강조, '이기는 후보론'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애정도 표현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국면이 시작되면 TV토론을 염두에 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정책 보고를 꼼꼼히 받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한 것도 TV토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캠프 측 기대이다.

지난 13일에는 카메라 시선 처리나 발언시간 맞추기 등을 연습하기 위해 2시간 동안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과 함께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리허설을 가졌다.

안 후보 측은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 캠프에서 TV토론 실무를 담당했던 김윤재 변호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 이원재 정책실장 등이 주요 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해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근혜 '나홀로 TV토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3일 단독으로 TV토론에 출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박 후보의 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 브리핑에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1일 단일화 관련 TV토론을 한다고 알고 있다"며 "박 후보는 23일 밤 10시 상

문·안 토론에 '맞붙' 같은 시간대로 추진

왔지만, 후보 간 이견 차가 커 난항을 겪어왔다. 토론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주요 패들드를 출연시켜 국정 주요 과제에 대해 묻고 답하는 방식 등 기존 토론방식은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22일 오전에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23일 토론이 확정되면 이를 연속 TV토론에 나서게 된다.

한편, 박 후보의 단독 TV 토론회와 관련, 일부 네티즌들은 얼마 전까지 TV토론에 반대하던 박 후보가 야권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단독 TV토론을 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토론의 상대가 없는 '단독 토론'이라는 표현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 학부정시(가군)  
 ■원시접수 12.21(금)~26(수)  
 2013 대학원 일반전형  
 ■원시접수 11.12(월)~30(금)

입학 학 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대선이고 뭐고 아무생각 없다

호남을대표하는 여행브랜드  
**조이투어 JOY TOUR CO.,LTD**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2000.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무안에서 떠나는 태국여행 (12/27~2/25 총16회)**

관광: 방콕/파타야 3박5일 ₩84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150,000), 가이드&기사 팀(\$40)

골프54H: 방콕/파타야 3박5일 ₩1,29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150,000), 가이드&기사 팀(\$40), 전동카, 도착일 석식, 클럽 중식, 캐디팀(300바트/18홀 1인기준)

무제한 라운딩: 방콕/파타야 3박5일 ₩89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150,000), 전동카, 캐디팀300바트(18홀/1인), 캐디팀200바트(18홀/1인), 미팅&샌딩비, 세탁비(50바트/1일)

**겨울방학때 떠나는 무안-마카오 전세기**  
 12/29-2/2 (매주 수, 토 출발!! 총 10회!!)

관광: 마카오/홍콩 2박4일 ₩999,000~  
 마카오/홍콩/심천 2박4일 ₩1,049,000~  
 마카오/홍콩(해양공원) 3박5일 ₩1,049,000~  
 마카오/홍콩/심천 3박5일 ₩1,099,000~  
 마카오/주해 골프 36H+관광 2박4일 ₩1,399,000~  
 마카오/주해 골프 54H+관광 3박5일 ₩1,649,000~

**중국**

★ 무안-상해/소주/항주 5일 ₩499,000~ ★ 무안-상해/장기계+천문산 4일 ₩849,000~  
 ★ 무안-상해/장기계/소주 5일 ₩1,049,000~ ★ 무안-북경 4일 ₩499,000~  
 ★ 무안 북경 5일 ₩569,000~ 불포함: 개인경비, 중국단체비자, 유류할증료

**겨울에 떠나는 중국 북경 트레킹!!**

★ 무안-북경 트레킹 4일 ₩749,000~ ★ 무안-북경 트레킹 5일 ₩799,000~  
 출발일: 12/4, 11, 18, 25 출발일: 12/7, 14, 21, 28  
 불포함: 기사&가이드팀 불포함: 기사&가이드팀

**유럽여행**

★ 서유럽 4개국 8일 알프스설경과 베르사유 ₩2,190,000~  
 ★ 서유럽 6국 12일 백조의성과 로렌티카도 ₩3,690,000~  
 ★ 동유럽 5국 9일 다뉴브유람과 비엔나왈츠 ₩2,590,000~  
 ★ 동유럽 7국 12일 눈부신 스위스와 할슈타트 ₩2,290,000~  
 ★ 시드니/포스트레판+센트럴코스트 6일 ₩1,690,000~

**국내 여행** 제주도 여행 3일!!!

★ 광주-제주도 ₩2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팀(₩10,000), 석식, 수송비 (광주-목포&광종)

**11월 1일 광주 → 목포항 셔틀버스 운행 개시**

★ 광주-제주도 2박3일(씨스타크루즈 왕복/일반호출 5인일기준)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팀,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 씨스타크루즈 목포-제주도 왕복 <광주출발 목포항 도착 셔틀버스포함> ₩30,000

**국내 섬여행**

★ 울릉도 2박3일 ₩310,000~ 1박2일 ₩279,000~  
 ★ 홍도, 흑산도 1박2일 ₩189,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요시, 광고사할 철저히 준수합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 가입업체  
 ※ 교통편: 항공 및 신철, 전철, 버스, 전차  
 ※ 공동조각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회가입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경비없을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성황에 따라 다름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